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12. 24.(화)
금융위 의결 후

안국·라운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 ◆ 금융위원회는 '24.12.24.(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안국저축은행과 라운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
-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금융위원회는 '24.12.24.(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안국저축은행과 라운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습니다.

* 한편, 에스앤티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되었고, 충분한 자본여력('24.9월말 BIS비율 21.5%)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지 않았음(경영개선권고 유예)

안국저축은행과 라운저축은행의 BIS비율(9월말)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2개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 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93)
<공동>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	책임자	국 장	이건필	(02-3145-7410)
		담당자	팀장(대행)	이정만	(02-3145-7370)

1.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 경위는?

-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악화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 안국·라온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었음
- * ① 종합등급 1~3등급이며,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5등급 : 경영개선권고
 ② 종합등급 4~5등급 : 경영개선요구

2.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의 의미는?

-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름
- * (경영개선권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임원진 교체요구, 조직축소, 자산처분, 영업의 일부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6월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

3. 안국·라온저축은행의 현재 경영현황은?

- 안국·라온 ‘24.9말 연체율(각각 19.4%, 15.8%) 및 고정이하여신비율(각각 24.8%, 16.3%)은 높은 수준이나(업권평균 연체율 8.7%, 고정이하여신비율 11.2%)
- BIS비율(각각 13.2%, 10.9%) 및 유동성비율(각각 116.8%, 132.7%)은 규제비율(BIS비율 7%, 유동성비율 100%)을 상회

4.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저축은행업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된 것임
 -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임

* BIS비율(%) : ('11말) 6.84 vs ('24.6말) 15.04 ('24.9말) 15.18
 연체율(%) : ('11말) 20.3 vs ('24.6말) 8.36 ('24.9말) 8.73
 고정이하여신비율(%) : ('11말) 25.6 vs ('24.6말) 11.5 ('24.9말) 11.2

5.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경영개선권고는 부실자산 처분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 또한,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

◆ (예시) '24.4.1일 연이율 3.9% 및 만기 1년 정기에예금에 4천 5백만원을 가입한 경우,
 ① '25.3말 만기 시점까지 유지시 이자 1,755,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②'24.12월중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658,125원만 수령 가능하여 1,096,875원 손실 예상

* 중도해지이율(예시) : (~1개월) 보통예금 이율, (2~10개월) 약정금리X50%, (11개월 ~) 약정금리X55%